

## 2주차

## 판소리를 기록한 사람들 2

### 주차별 차시

	차시명
1차시	20세기 이후 문헌에 나타난 판소리
2차시	판소리 음반 취입, 라디오 방송에 관여한 이기세, 이해구
3차시	판소리를 산정해 연재한 이해조
4차시	판소리 명창들의 창본을 정리한 김택수, 한덕수
5차시	판소리 명창들의 사진과 시평을 남긴 이영민
6차시	판소리 연구서 『조선창극사』를 저술한 정노식

## 1차시 20세기 이후 문헌에 나타난 판소리

### 학습 목표

- 20세기 이후 다양한 판소리 자료를 살펴보고, 그 내용과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 01. 20세기 이후 판소리 자료로서의 음반, 방송

##### 1) 유성기음반 관련 자료

###### 황성신문 축음기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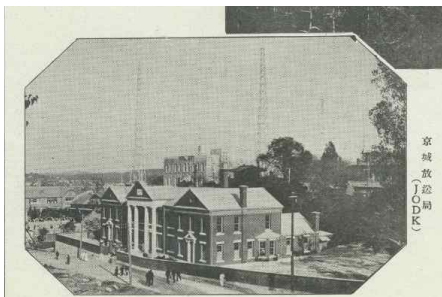


서양과학계에서 발명한 유성기를 구입해와 서부서 봉상시 앞 113통 9호에 진열하였는데, 그 소리 가운데는 노랫소리, 젓대소리, 생황소리, 비파소리들이 기계가 움직이는 대로 들려서 완전하게 연극장과 같으니 여러 신사들은 이곳으로 왕림하여 구경하시오.

- 『황성신문』 1899.03.13.

- 경성방송국(JODK) 라디오방송 관련 자료

###### 1930년대 서울 경성방송국



###### 경성방송국의 한국인 직원들



경성방송국 방송 편성표



윤직원 영감은 본이 전라도 태생인 관계도 있겠지만, 그는 워낙 남도 소리며 음률 같은 것을 이만저만찮게 좋아합니다...윤직원 영감은 그래서 바로 머리맡 연상 위에 삼구짜리 라디오 한 세트를 매두고, 그걸 금이야 옥이야 하면서 방송국의 마이크를 통해 오는 남도소리며, 음률 가사 같은 것을 듣고는 합니다...대복이는 멀리 타관에를 심부름 가고 있지 않는 이상 매일같이 골목 밖 이 발소에 나가서 라디오의 프로그램과 명창대회나 조선음악연구회 주최의 공연이 있는지를 신문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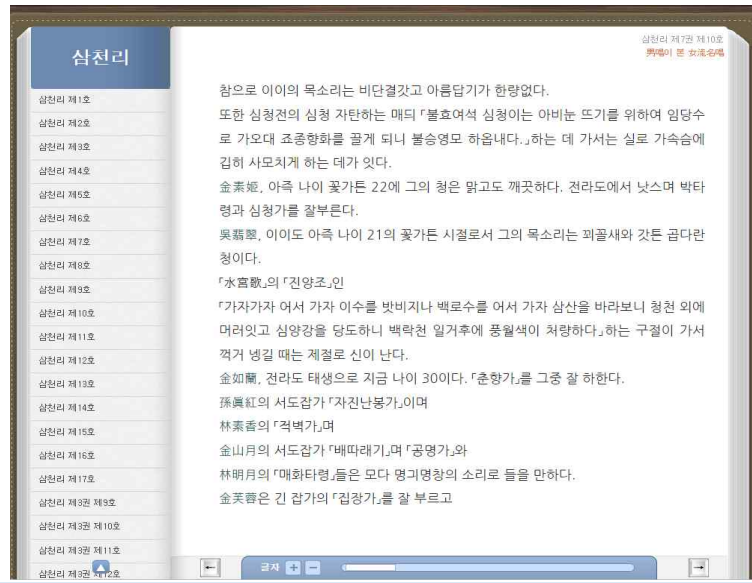
- 채만식, 『태평천하』

- 당시 방송 편성표는 이런 신문 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 기사를 통해 1933년 12월 6일 수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30분간 '창극조' 즉 판소리 방송이 송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30년대 채만식이 쓴 소설 『태평천하』 속 주인공 윤직원 영감도 라디오를 통해 국악방송을 즐겨듣는 팬이었는데, 이때의 남도소리에는 당연히 판소리가 포함된다. 대복이가 신문에서 찾아내야 했다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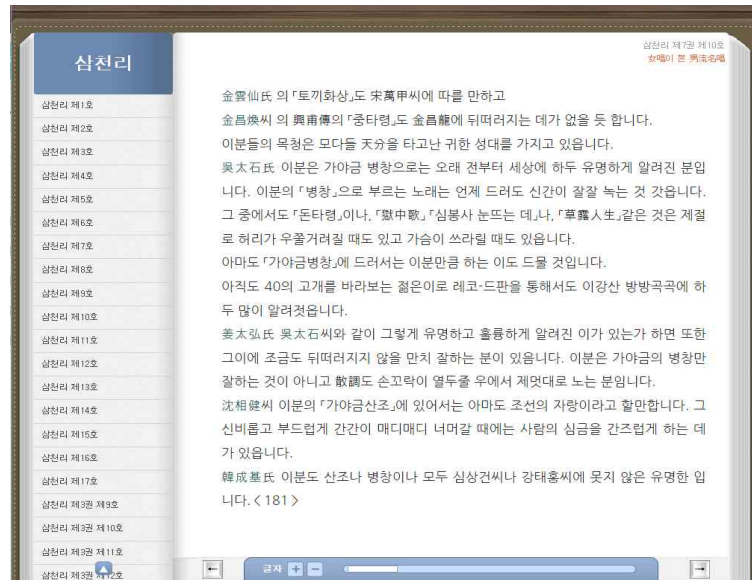
2) 20세기 이후 판소리 자료로서의 신문, 잡지 기록

<p>1910년대 판소리 관련 신문기사 「연흥사의 좋은 판소리」</p>	<p>1930년대 판소리 관련 신문기사 「조선 소리 내력기명인 명창이 간 곳은 어디(하)」</p>

1930년대 판소리  
관련 잡지기사 오태석,  
「남창(男唱)이 본  
여류명창(女流名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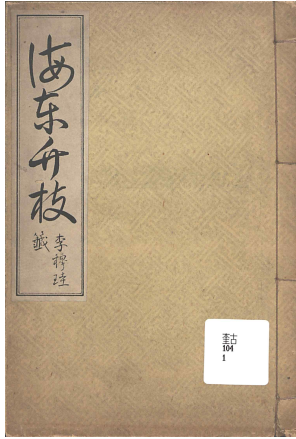
1930년대 판소리  
관련 잡지기사 오비취,  
「여창(女唱)이 본  
남류명창(男流名唱)」



- 잡지는 발행 주기가 길다 보니, 신문과 비교해 내용이 풍부하고 분량도 많은 편이다. 잡지 『삼천리』에는 판소리 명인, 명창 관련 기사 및 평론이 다수 실려있는데, 1935년에는 이렇게 남성 명창이 여성 명창의 소리를, 여성 명창이 남성 명창의 소리를 평한 특집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 3) 20세기 이후 판소리 자료로서의 개인 문집 소재 시문,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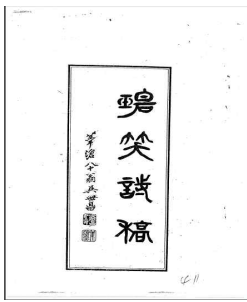
#### 최영년, 『해동죽지』



세상에 전하기를, 남원 기생 춘향과 이몽룡이 서로 죽어도 변치 않을 약속을 했으나 부사에게 걸려들고, 몽룡이 어사가 되어 옥에서 구해내는 것을 후인이 연희로 짜서 노래로 만들었다. 춘향가는 절개, 심청가는효도, 흥보가는 우애를 내세워서 사람들에게 감동의 정서를 일으킨다. 또한 노래 속에 온갖 악조를 갖추어서 육성으로는 으뜸인데 지금까지 전하여 명성을 얻은 것은 춘향타령이다. **지금은 이동백이 제일 명창이다.**

- 『해동죽지』

#### 이영민, 『벽소시고』 (부록: 「근대국악계인물」)



- 이영민의 문집 『벽소시고』 부록 「청구악부초」의 「근대국악계인물」에는 국악인 41명에 대한 평시 및 주석이 있다. 이영민 또는 그와 함께 판소리를 감상한 이들이 쓴 시를 써서 옆에 걸어두고 당시 무대에 섰던 명창들을 직접 찍은 당시 명창 사진은, 중요한 근현대판소리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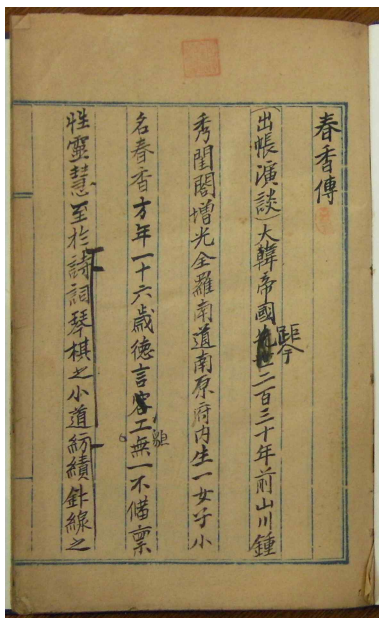
#### 4) 20세기 이후 판소리 자료로서의 대본 또는 창본

##### 판소리 명창들의 소리책 또는 창본



- 명창들이 개인 소장용으로 적어둔것을 '소리책'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인 연행을 염두에 둔 것이었으므로 사설 즉 텍스트만이 아니라 장단과 악조도 표기되어 있다. 국립무형유산원 특별전 <영원한 판, 소리로 있다> 전시실을 찍은 이 사진 하단에 있는 책들이 바로 그러한 대본 또는 창본이다.

##### 여규형, 『춘향전』 원고본



##### 이해조, 『옥중화』 신문연재본, 활자본



- 그 외에 여규형은 순한문으로 창극 <춘향전> 대본을 각색하기도 했고, 이해조는 판소리 다섯 바탕을 정리하여 신문에 연재한 다음 그 인기에 힘입어 활자본을 펴내기도 했다.
- 20세기 이후에는 판소리 대본, 창본이처럼 다양한 형식과 모습으로 대중들과 만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02. 20세기 이후 판소리 자료의 대상과 내용

### 1) 새롭게 바뀐 판소리 공연 환경과 공연 현장에 대한 기록

#### 판소리 명창대회 기사

광대의 조합 설립. 경성부훈정동 등지에 설립한 경성구파배우조합(京城舊派俳優組合)은 그 동안 당국에 청원 승인된 후 지나간 26일 경성 광무대와 연흥사두 곳에 있는 남녀 배우 일동과 기타 배우 등이 많이 모여 장래에 이행하여 갈 사무분장을 행하였다는데, 김창환 이동백은 선생으로, 조합장은 장재욱, 부조합장은 김인호 김봉이로정하였고, 기타 총무는 조양운한문필등으로, 사찰은 곽천희로모두 분장한 후 장래에 아무쪼록 정신을 차려 남의 치욕을 면하고 잘 수신하여 감이 조합 발전의 기초라고 강재욱의 설명이 있었다는데, 그 조합 일체 사무의 장리는 이전에 경험 많은 윤병두가 분장하여 분다더라.

- 경성구파배우조합설립 기사

### 2) 판소리 명창의 육성 및 음반, 방송 정보

〈심청가〉 중 ‘모녀상봉’ 정정렬녹음 음반	한국의 위대한 판소리 명창들(Ⅳ) 판소리5명창 정정렬	〈심청가〉 중 ‘모녀상봉’ 음반 가사지

- 1936년 2월 콜롬비아사에서 발매된 정정렬의 〈심청가〉 중 ‘모녀상봉’ 대목 수록 음반이다. 이 음반은 1995년 신나라레코드, 1996년 열지미디어에서 두 차례나 복각 되었을 만큼, 상당한 관심을 받았다. 이 음반 자료를 통해, 정정렬 명창의 육성, 한성준 고수의 북 소리를 실제로 만나볼 수 있다. 그 외 오른쪽 사진과 같은 가사지, 광고 등 음반과 관계된 다양한 기록들은 당대 판소리의 실상, 판소리 명인 명창의 예술 세계에 접근하는 데 도움을 준다.



3) 판소리 명창의 생애와 예술에 대한 인터뷰 또는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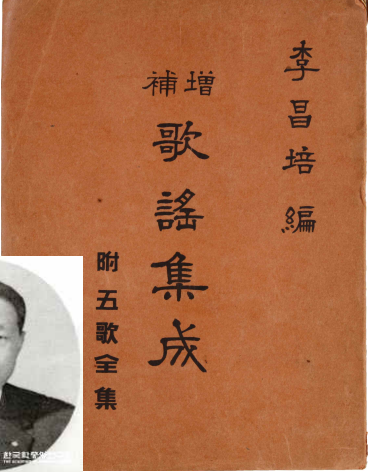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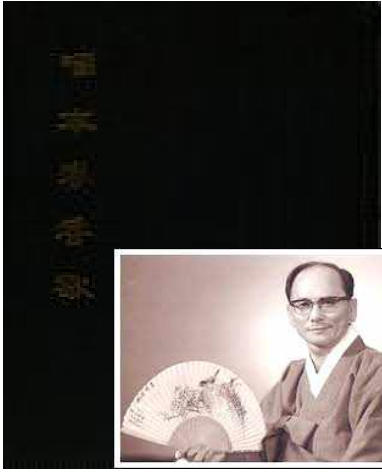


- 신문, 잡지에 수록된 판소리 관련 기사 가운데는 최초의 본격적인 판소리 저술이라 할 수 있는 『조선창극사』의 골격에 해당하는 글의 초고가 그보다 2년 앞서 잡지 『조광』에서 발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창극사』는 다수 명창들의 생애와 더듬, 예술을 보고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명창 열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날치’에 관한 항목이 유사하게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범내려온다>를 부른 밴드 이날치의 ‘이날치’는 후기8명창에 속하는 실존 명창의 이름을 가져온 것이다.

#### 4) 판소리 사설의 정리 및 판소리 창본의 공식 발간

김택수	이선유의 『오가전집』(1933)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30%;"> <p>오가전집 五歌全集 Complete Collection of the Five Pansori Works</p> <p>세로 218, 가로 15.3cm 인쇄본   1933년 고창판소리박물관</p> </div> <div style="width: 65%;">  </div> </div>

- 이선유의 <오가전집>은 명창 한 사람이 부르는 판소리 사설 다섯마당을 완전하게 채록하여 간행한 최초의 창본이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명창 이선유가 아니라 김택수라는 사람이다. 정리자가 따로 존재했던 것이다. 판소리 사설은 이미 조선 시대에 정착되었으나, 신재효 정리본이나 그 외 소설본에는 장단이나 악조와 같은 음악적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았다. 일부 창자가 개인적인 학습을 목적으로 소리책을 만들어두긴했지만 이것을 공식적인 출판물로 발간하는 것은 훨씬 후의 일이다.

이창배의 『(증보)가요집성』(1961)	김연수의 『창본춘향가』(1967)
 	 

- 1960년대에는 선소리산타령명창 이창배의 <(증보)가요집성> 속 <오가전집>과 같은 교합(校合) 창본 즉 짜깁기 창본이 일시적으로 유행하기도 했지만, 김연수 이후 명창 본인이 주체가 되어 창본을 펴내는 흐름이 자리잡았다.

##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s://dbstthumb-phinf.pstatic.net/2644\\_000\\_8/20150327223419302\\_IBQV9U8KJ.jpg/77c7894a-6c16-48.jpg?type=m250\\_fst\\_nce&wm=Y](https://dbstthumb-phinf.pstatic.net/2644_000_8/20150327223419302_IBQV9U8KJ.jpg/77c7894a-6c16-48.jpg?type=m250_fst_nce&wm=Y)
- 한국가사문학유,  
<http://www.gasa.go.kr/WService/AncientDoc/Bibliograph/DetailView.aspx?TopID=B&SubID=02&BookID=A00000557&Mode=100>
- Google Books,  
[https://books.google.co.kr/books/about/%E5%94%B1%E6%9C%AC%E6%98%A5%E9%A6%99%E6%AD%8C.html?id=UokxAAAAIAAJ&redir\\_esc=y](https://books.google.co.kr/books/about/%E5%94%B1%E6%9C%AC%E6%98%A5%E9%A6%99%E6%AD%8C.html?id=UokxAAAAIAAJ&redir_esc=y)
- 서한범, 판소리 동초제(東超制)의 전승, 우리문화신문, 2020.03.30,  
<https://koya-culture.com/mobile/article.html?no=123569>
- 최난경, 이선유oga전집연구, 박이정, 2009.
- 국립무형유산원 전시 가이드북,  
<https://www.nihc.go.kr/planweb/board/download.9is?fileUid=fb0db9957ac85138017da1e4cb2e0430&boardUid=ff8080816f83aa75016f83ac36f4000f>
- 漁鳥同室主人, 「조선광대의 사적 발달과 및 그 가치」, 『조광』 4(5), 조광사, 1938.5, 310~329
- 한국전통연희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26281&cid=56785&categoryId=56785>
- 한국유성기음반 홈페이지,  
<http://www.78archive.co.kr/v2/sub/introduce/notice.php?at=view&bid=21&uid=4103>
- 민속원,  
[https://www.minsokwon.com/booklist/book\\_specific.asp?bookno=206&bookcate=0](https://www.minsokwon.com/booklist/book_specific.asp?bookno=206&bookcate=0)
- 국악음반박물관,  
<http://www.hearkorea.com/vimg/gododata/37684/MISP3429.jpg>
- 벅스,  
<https://image.bugsm.co.kr/album/images/200/99/9932.jpg?version=20170928020337.0>
- 한국 유성기음반,  
[http://www.sparchive.co.kr/v1/image\\_thum\\_view.php?wsize=375&fPath=upload\\_Lyric/e5/e5d7f8fcc12fc2a4537754419fb85655.jpg](http://www.sparchive.co.kr/v1/image_thum_view.php?wsize=375&fPath=upload_Lyric/e5/e5d7f8fcc12fc2a4537754419fb85655.jpg)
- 十二月六日【水曜】第二放送, 조선일보, 1933.12.7, 8면,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33120700239108004&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33-12-07&officeId=00023&pageNo=8&printNo=4493&publishType=00010>
- 滿場·再嘆!三嘆! 판소리大會 初夜大盛況, 조선일보, 1938.4.28, 3면,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publishDate=1938-04-22&officeId=00023&pageNo=1>
- 전상욱, 「〈춘향전〉 관련 자료 몇 종에 대하여」, 『국문학연구』 23, 국문학회, 2011
- 이해조, 『춘향가』, 보급서관, 1914,  
[http://cover.nl.go.kr/kolis\\_on/2015/CNTS-00075178667\\_thumbnail.jpg](http://cover.nl.go.kr/kolis_on/2015/CNTS-00075178667_thumbnail.jpg)
- 이해조, 『춘향가』, 박문서관, 1921,  
[http://cover.nl.go.kr/kolis\\_on/2002/CNTS-00047818460\\_thumbnail.jpg](http://cover.nl.go.kr/kolis_on/2002/CNTS-00047818460_thumbnail.jpg)
- 이해조, 『춘향가』, 박문서관, 1921, 1면,  
[http://cover.nl.go.kr/kolis\\_on/2002/CNTS-00047818460\\_thumbnail.jpg](http://cover.nl.go.kr/kolis_on/2002/CNTS-00047818460_thumbnail.jpg)
- 獄中花(춘향가 강연), 매일신보, 1912.1.1, 6면,  
[https://nl.go.kr/newspaper/detail.do?content\\_id=CNTS-00093914190](https://nl.go.kr/newspaper/detail.do?content_id=CNTS-00093914190)
- 국립무형유산원,  
<https://www.nihc.go.kr/index.9is?contentUid=ff808081700f1f5b01703d386d3>

80bfa

- 순천대학교 김용찬 교수 제공
- 한국전통연희사전,  
[https://dbsctthumb-phinf.pstatic.net/4122\\_000\\_1/20151007174209428\\_UQGAYXAOP.jpg/ea38\\_603\\_i1.jpg?type=w300\\_fst&wm=N](https://dbsctthumb-phinf.pstatic.net/4122_000_1/20151007174209428_UQGAYXAOP.jpg/ea38_603_i1.jpg?type=w300_fst&wm=N)
- 한국전통연희사전,  
[https://dbsctthumb-phinf.pstatic.net/4122\\_000\\_1/20151007173501933\\_SLATKIRLG.jpg/ea38\\_467\\_i1.jpg?type=w340\\_fst&wm=N](https://dbsctthumb-phinf.pstatic.net/4122_000_1/20151007173501933_SLATKIRLG.jpg/ea38_467_i1.jpg?type=w340_fst&wm=N)
- 한국전통연희사전,  
[https://dbsctthumb-phinf.pstatic.net/4122\\_000\\_1/20151007174417429\\_FW53OLDD9.jpg/ea38\\_627\\_i2.jpg?type=w300\\_fst&wm=N](https://dbsctthumb-phinf.pstatic.net/4122_000_1/20151007174417429_FW53OLDD9.jpg/ea38_627_i2.jpg?type=w300_fst&wm=N)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http://kyudb.snu.ac.kr/ImageServlet.do?imgFileName=GA00104\\_00IH\\_0001\\_0001.jpg&path=/data01/stream/MJR/IMG/GA00104\\_00/GA00104\\_00\\_0001/GA00104\\_00IH\\_0001\\_0001.jpg](http://kyudb.snu.ac.kr/ImageServlet.do?imgFileName=GA00104_00IH_0001_0001.jpg&path=/data01/stream/MJR/IMG/GA00104_00/GA00104_00_0001/GA00104_00IH_0001_0001.jpg)
- 국사편찬위원회,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ma\\_016\\_0520\\_0290](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ma_016_0520_0290)
- 국사편찬위원회,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ma\\_016\\_0520\\_0280](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ma_016_0520_0280)
- 演戲: 연흥사의좋은 판소리, 매일신보,  
1915.4.17, 3면,  
[https://nl.go.kr/newspaper/detail.do?content\\_id=CNTS-00093990259](https://nl.go.kr/newspaper/detail.do?content_id=CNTS-00093990259)
- 朝鮮소리來歷記 名人 名唱이 간곳은어디【下】,  
조선일보, 1939.7.7, 8면,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39070700239104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39-07-07&officeId=00023&pageNo=4&printNo=6525&publishType=00010>
- 十二月六日【水曜】第二放送, 조선일보,  
1933.12.7, 8면,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33120700239108004&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33-12-07&officeId=00023&pageNo=8&printNo=4493&publishType=00010>

- 공유마당,  
<https://gongu.copyright.or.kr/gongu/wrt/wrt/view.do?wrtSn=13160282&menuNo=200026>
- KBS 방송박물관,  
<https://office.kbs.co.kr/museum/archives/9312>
- KBS 방송박물관,  
<https://office.kbs.co.kr/museum/archives/9312>


## 2차시 판소리 음반 취입, 라디오 방송에 관여한 이기세, 이해구

### 학습 목표

- 음반사 문예부장으로 판소리 음반 취입에 관여한 이기세의 기록을 통해 그의 활동을 파악할 수 있다.
- 라디오 방송 담당자로 판소리를 연구하고 자료를 발굴한 이해구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 01. 판소리 음반 취입에 관여한 이기세

##### 1) 이기세의 생애와 판소리 관련 활동

이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이명 : 이현경</li><li>• 창씨명: 타카야마키세이[高山基世]</li><li>• 생몰년: 1888년~1945년 (황해도 개성군출신)</li><li>• 도쿄물리학교 및 도쿄고등상업학교에서 수학</li></ul>

- 1910년 일본에서 2년간 신파극을 배우고 귀국해, 1912년 유일단, 1916년 예성좌, 1919년 조선문예단, 1922년 예술협회를 조직함  
→ 연극 분야에서의 활동
- 1923년~1928년 <매일신보> 사회부장을 거쳐 발행인 겸 편집인을 역임하고, 경성방송국 조선어 방송에도 관여함  
→ 언론 분야에서의 활동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포함)
- 1937년 외국영화 수입회사인 기신양행을 경영하면서 영화 <심청>을 제작함  
→ 영화 분야에서의 활동

- 1933년 판소리 개량운동의 일환으로 윤백남·박월정과 함께 <단종애곡> 창작 및 발표에 참여함

→ 창작 판소리 작업

<단종애곡> 음반 광고



- 1931년 조선음률협회(김창환, 송만갑, 김창룡, 박월정, 김록주, 박록주 등), 1934년 조선성악연구회조직 시 주요한 역할을 맡음

→ 판소리 관련 단체 조직

- 일동축음기주식회사, 빅타레코드사, 폴리돌레코드사에서 문예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전통 음악 음반을 기획함

→ 판소리 음반 기획

- 1926년 7월, 이기세의 일동축음기주식회사 조선총대리점 인수와 윤심덕의<사의 찬미> 녹음이 동시에 이루어짐

→ 음반사 문예부장의 선구적 인물

음반 <사의 찬미> 판매량에 관한 이기세의 기사 및 <사의 찬미> 음반 가사지



## 2) 음반사 문예부장의 역할과 판소리 음반 기록

- 1930년대 조선에서 음반산업이 급격히 성장하자 민족주의 우파 계열의 지식인 중 일부가 당시 음반사에서 음반 제작과 기획, 홍보를 전담하는 문예부장으로 활동함
- 1930년대 조선에 진출한 '6대 음반사'

빅타레코드	콜럼비아레코드	시에론레코드
태평레코드	폴리돌레코드	오케레코드

- ✓ 1930년대 조선에 진출한 6대 음반사, 빅타레코드, 콜럼비아레코드, 시에론레코드, 태평레코드, 폴리돌레코드, 오케레코드 여섯 곳 중 무려 두 곳에서 이기세는 문예부장을 맡았다

음반사	문예부장
콜럼비아	이원배, 안익조, 이하윤, 구원회
빅타	이기세, 유영국, 김성집, 이면상
시에론	이서구, 김봉규, 박영호
폴리돌	이기세, 이원배, 왕평, 김준영
오케	이철, 김성흠, 김능인, 방희택[방예정], 조명암[조영출]
일동·태평	민호식, 김준영, 이서구, 유상중, 박영호

- 레코드 회사의 문예부란?

축음기회사의 문예부란 정의대로의 문예와는 그 성질이 판이하여 레코드 제작에 대한 기획을 위시하여 매월 신보를 배정하여 판매부에 넘기기까지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문예부입니다. 가수의 인선, 작사·작곡·편곡에 선정과 배정, 재래 조선음악의 선곡, 극 각본 등에 선정을 마치면 가수의 연습·취입, 예산과 여정에 편성, 취입 디렉터, 취입 후에 매월 신보 선정, 문구 카드, 월보 편집, 선전 방법, 검열 등이 문예부가 담당한 일입니다.

-『조광』 제4권 2호(28호), 1938.2

- 1세대 문예부장 : **이기세**, 이원배, 이서구 등

- ✓ 1900~1910년대 청년기를 보낸 세대
- ✓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 청년기에 일본에서 교육 받음
- ✓ 1910년대부터 연기 활동이나 극작 활동, 영화 제작, 방송 편성 등의 경험을 쌓은 것이 특징임
- ✓ 조선의 전통 음악 중에서도 연극적 성격이 강하고 '구극(舊劇)'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판소리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였음
- ✓ 대체로 전통 음악의 있는 그대로의 '보존', 최소한의 '개량' 혹은 '정화'를 목표로 함
- ✓ 주도적으로 제작한 조선악 음반들: 정악계열의 기악합주, 판소리 주요 대목, 단가, 남도민요 등

1926년 발매된 제비표레코드  
〈적벽가(3): 자룡이 만나는데〉 음반



- 2세대 문예부장 : 안익조, 이철, 김능인, 왕평, 이하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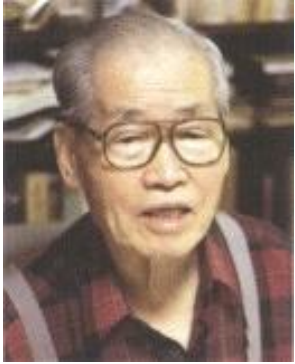
- ✓ 1920년대 청년기를 보낸 세대
- ✓ 종류 이하의 가정에서 태어나 조선에서 고등보통학교 및 전문학교를 다녔음
- ✓ 당시 대중들에게 '문인'으로 인식되는 인물
- ✓ 이전의 조선악 즉 전통 음악을 음반에 재수록하는 대신, 신민요나 신작판소리, 창극 등과 같이 조선의 재래음악이 가지고 있던 음악적 요소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음악 음반을 기획했음
- ✓ 1930년대 후반, 일본에서 양악을 전공한 유학생 출신 문예부장들이 음반업계의 중심에 자리잡으면서 전통음악의 입지가 점차 좁아지게 됨

1937년 발매된 오케레코드창극  
〈춘향전: 이도령 광한루행(전편기1)〉 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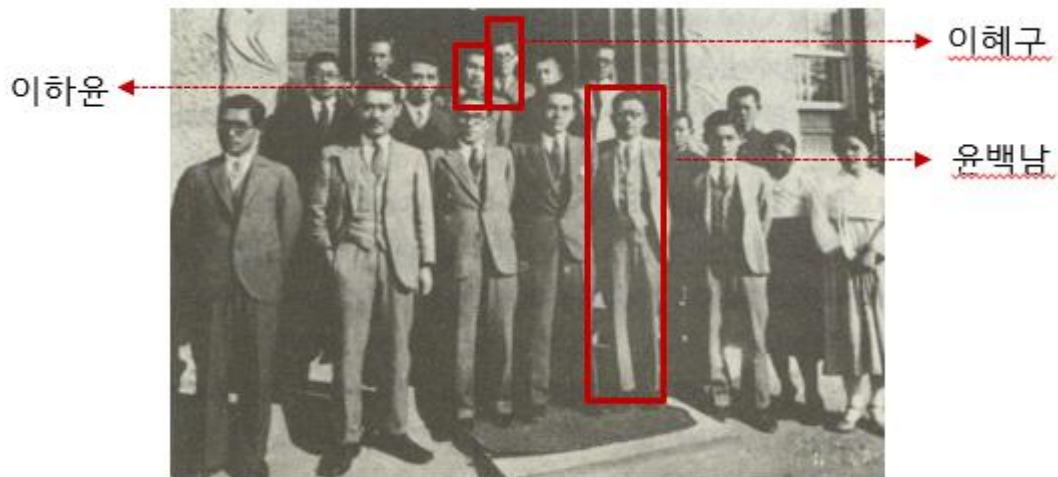


## 02. 라디오 국악방송에 관여한 이해구

### 1) 이해구의 생애와 판소리 관련 활동

이해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생몰년 : 1909년~2010년</li><li>• 호 : 만당</li><li>• 어린 시절 바이올린, 오르간 등 서양악기를 배웠음</li><li>• 경성제국대학 영문과에 진학해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함</li></ul>

- 1932년 경성방송국 프로듀서로 취직해 음악·연예·어린이 시간을 맡음
- 과장 윤백남, 강연 프로그램 담당 이하윤, 조선인 아나운서 3명 등 근무



- 1930년 : 채동선실내악단 창단 시 비올라 연주자로 활동함
- 1945~1947년 : 공보부 방송과장, 방송국장을 지냄
- 경성음악전문학교가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음악부로 개편될 때 교수진으로 참여하여 1974년까지 서울대학교 국악과 교수로 재임
- 1948년 : 성경린, 장사훈과 함께 국악학회(현 한국국악학회)설립에 참여함
- 저서: 『한국음악연구』(1957), 『한국고전악기해설』(1959), 『한국악기도록』(1962), 『한국음악서설』(1967), 『한국음악논총』(1976), 『증보한국음악연구』(1996), 『신역악학개범』(2000) 등

#### 『보정한국음악연구』



- 한국음악학 연구자 1세대
- 실기 위주의 국악에 대한 이론화를 시도해 체계적인 학문으로 정립했음

## 2) 라디오 방송 담당자의 역할과 판소리 방송 기록

-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1926년 11월 설립된 경성방송국(호출부호 JODK)은 한국어와 일본어를 함께 사용하는 혼합 방송이었음
- 1932년 4월 사단법인 조선방송협회로 개칭함
  - ✓ 1932년 6월 **이혜구(연예 프로그램 편성 담당, 연예와 어린이 시간)**가 9월 **이서구(교양 프로그램 편성 담당(강연·강좌와 라디오 학교))**가 입사해 방송 편성을 담당함
- 1933년 4월 26일 한국어 방송이 분리된 이중방송이 개시되면서 한국어 방송 편성에서 오락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높아짐
  - ✓ 오락 프로그램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그중에서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던 음악 프로그램의 절대적인 분량도 크게 늘어남

국악방송 프로그램은 모든 방송 프로와 함께 다음 달 한 달치가 미리 작성되었다. 그 방송 프로 중 음악연예 방송시간은 평일 저녁에는 8시부터 9시 30까지 1시간 30분이고 지금과는 달리 한 프로는 30분 단위여서, 음악연예 방송으로는 하루 저녁 3단위가 들어가고 - 낮0시5분의 음악 연예를 제외하고 -, 한 달 30일에 약 90 단위가 들어갔다. 음악연예 방송 프로는 국악·서양음악·유행가·지금의팝송·· 드라마·소설낭독·야담·영화이야기·송서(誦書) 등을 포함하였다. 그중에서국악방송 프로는 아악·음율·취타·시나위 또는 속곡(俗曲)·가곡·가사·시조·**창극조-즉 판소리**··서도소리·경기 좌창·경기 입창·서도 잡가·남도 잡가·가야금 병창과 산조 등 약 15개의 국악 종목을 포함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국악방송 프로는 대략 위의 15종목을 망라하였다. 한 달치 국악방송 프로를 만들 때에는 방안지에 그 15종목을 세로로 내려 쓰고, 1일부터 30일까지의 날짜를 가로로 쓰고, 방송 날짜란에 방송될 국악 종목을 작대기로 표시하여, 한 달 동안 국악방송이 어느 한 가지에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물론 특별한 행사 때에는 예외이지만, 국악방송은 평균 하루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적어도 한 종목씩은 방송되었다. 따라서 그때는 국악방송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다.

- 이혜구, 『만당 음악편력』, 민속원, 2007

### 경성방송국 사람들



- 판소리 명창  
김창환, 송만갑, 김창룡
- 가야금 명인 심상건  
판소리 명고수 한성준

- ✓ 이해구는 일본에 중계방송되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방송 음악 해설 작성 업무를 겸하면서 음악에 관한 관심을 본격화했고, 관심의 폭을 한국음악으로도 확장해 공부했음

“하루는 윤백남 과장이 국악에 백지인 나를 보고 “음악 프로 담당자로서 국악 장단이라도 배우라”고 일러 주어서 파고다 공원 맞은 쪽에 있는 축음기 상회로 이기세 빅터 축음기 회사 문예부장을 찾아 가서 그 선생이 그려준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장단의 종이 조각과 거기서 산 강태홍의 가야금 산조 음반을 가지고 집에 와서 축음기를 틀어 놓고 장단을 짚어 보았다. 그 때까지 국악에 등을 돌렸던 나는 장단을 짚을 줄 안 뒤부터 국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 이해구, 『만당 음악편력』, 민속원, 2007

- 1935년, 이해구는 경성방송국 업무 분장에 따라 ‘음악’ 부분을 각 한 사람씩 전담함

음악	양악 전부분의 일절 및 조선음악 중 악, 가곡, 가사, 유행가, 남도판소리 및 잡가 이밖에 스포츠 중계, 상황 중계
연예	조선음악 중 이상의 남도소리를 제외한 경기 및 서도 잡가, 고담, 라디오 드라마, 라디오 소설, 영화이야기, 만담 등

- 프로듀서는 방송을 편성하고 제작하는 일 외에 출연자를 일일이 섭외하고 연주를 지시하는 일도 겸했음
  - ✓ 이해구는 이 과정에서 송만갑, 이동백, 김창룡, 정정렬, 임방울, 조상선, 한성준, 조학진 등을 자주 면담하며, 판소리에 관한 안목과 식견을 갖추게 됨
- ‘창극조’라는 신조어의 유래
  - ✓ 라디오 방송의 음악 소개에서 비롯됨
  - ✓ 일본어로 된 신문에 조선어방송 프로그램이 게재되기 때문에 우리말을 한자로 써야 했음
  - ✓ 빅타레코드사의 이기세 문예부장이 광대가 하는 극의 소리란 뜻의 창극조(倡劇調)라고 하였음
  - ✓ 그 후 제2방송과 윤백남 과장이 광대 창(倡)자를 부를 창(唱)자로 고쳐 쓰는 게 낫겠다하여 창극조(唱劇調)라는 말이 나왔다고 함

『조선창극사』 표지



『동아일보』 「라디오」



- 이해구는 라디오 방송국 재직 중에 판소리를 연구하고, 판소리 관련 자료를 발굴했음

판소리의 계보를 만들고 싶어서 이동백에게 “이통정! 누구한테 배웠소?”라고 물으니 이동백 왈, “김창룡 아버지 김정근에게 배웠지.” 김정근은 누구에게 배웠느냐 물으니 “김정근 아버지 김성옥에게 배웠다” 대답하고 김성옥은 누구에게 배웠느냐고 물으니 “왜 자꾸 물어보느냐. 판소리는 2~3개월 스승에게 배우고 절간에 들어가 자득하는 거지 그게 뭐 중요하냐”며 화를 내요. 그 이후 계보 만드는 것을 단념했죠.

- 정혜원 정리, 「국악학자 이해구대담자료(1): 명창 이동백에대한 회고담」,  
『판소리명창』 창간호, 국악음반박물관판소리연구회, 2005

조선성악연구회는 김초향(金楚香)의 후원자였던 순천(順天) 갑부 우석(友石) 김종익(金鐘翊)이 준 공평동(公平洞) 29번지의 조그마한 한옥(韓屋)에 있었다. (중략) 내가 판소리 방송을 의뢰한 사람은 그 뜰 아랫방의 김용승(金容承)이었다. 그 젊은 사람은 비겁이고 거기서는 유일한 지식인으로 그 후 많은 창극(唱劇) 각본(脚本)을 썼다. 그가 하루는 흥미로운 정보를 주었다. 즉, 매월 삭망(朔望)에 명창들이 대청 선반 위에 있는 상자를 보고 절을 한다는 정보였다. 나는 그를 보고 상자에 든 것을 몰래 빼와서 함께 보자고 꾀었다. 그가 가져온 것은 <팔도재인등장>(八道才人等狀)과 <완문>(完文)이었다. 나는 그와 함께 단성사 옆에 있는 연우(研友) 사진관의 박필호(朴弼浩)에게 가서 그 두 문서를 사진으로 찍고 감쪽같이 돌려주었다. 그 소중한 문서는 6.25 동란 중 내 장서와 함께 사라져버렸다. 그 후 이병기(李秉岐) 교수가 김삼불(金三不) 군이 주더라며 그 사진을 내게 주어서 내 수중으로 다시 돌아왔었다. 그 문서가 상실될까봐 ‘송만재의 관우회’에 게재하였다. 그 원문은 상실되었지만 그 사진만은 다행히 건졌다. 그 <팔도재인등장>과 <완문>은 방송국시절의 나의 발굴 제1호이다.

- 이해구, 『만당 음악편력』, 민속원, 2007

##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52227>
- 「라디오」, 『동아일보』, 1932.12.02.,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32120200209202017&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32-12-02&officeId=00020&pageNo=2&printNo=4296&publishType=00020>
- 이가운, 「“중고제전통가무악재발견” 열려...해방이후 해외 진출 최초 국악인, 심상건과 딸 심태진」, 『서울문화투데이』, 2018.11.27.,  
<http://www.s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108>
- 민속원,  
[https://www.minsokwon.com/booklist/book\\_specific.asp?bookno=196&bookcate=3](https://www.minsokwon.com/booklist/book_specific.asp?bookno=196&bookcate=3)
- 한상언, 「대중문화의 신개지를찾아 떠나다: [한국영화스타9] 영화감독 윤백남의 삶 ②」, 『오마이스타』, 2007.02.10.,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0391435&CMPT\\_CD=SEARCH](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0391435&CMPT_CD=SEARCH)
- 한겨레음악대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56549&cid=60486&categoryId=60486>
-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https://www.daarts.or.kr/renaissance/view/89?>
-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https://www.daarts.or.kr/renaissance/view/250>
- 배연형, 『한국유성기음반문화사』, 지성사, 2019, 532쪽.
- 〈사의 찬미〉 음반, 온라인 경매서 4800만 원에 낙찰, 오마이뉴스, 2015.07.20.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41515&cid=46664&categoryId=46664>
- 한국유성기음반,  
[http://www.sparchive.co.kr/v2/sub/image/popup.php?at\\_opt=&id=8507](http://www.sparchive.co.kr/v2/sub/image/popup.php?at_opt=&id=8507)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s://dbsctthumb-phinf.pstatic.net/2644\\_000\\_3/20180319214637537\\_ONQMK9LBE.jpg/6f222240-c573-46.jpg?type=m250\\_fst\\_nce&wm=Y](https://dbsctthumb-phinf.pstatic.net/2644_000_3/20180319214637537_ONQMK9LBE.jpg/6f222240-c573-46.jpg?type=m250_fst_nce&wm=Y)

## 3차시 판소리를 산정해 연재한 이해조

### 학습 목표

- 이해조의 생애와 활동을 살펴본 후, 판소리 명창의 구술을 산정하여 남긴 판소리 기록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01. 이해조의 생애

##### 1) 이해조의 출생과 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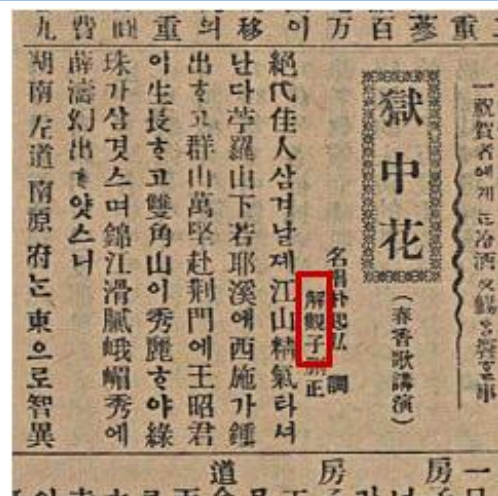
이해조



- 생몰년: 1869년~1927년
- 경기도 포천군 신북면 신평리에서 이철용의 장남으로 태어남
- 인조의 셋째 아들 인평대군의 후손인 왕족의 집안이나, 대원군파가 숙청될 당시 조부 이재만이 처형당하면서 크게 위축되었음

- 호: 동농, 이열재
- 우산거사(牛山居士), 선음자(善飮子), 하관생(遐觀生), 석춘자(惜春子), 신안생(神眼生), 해관자(解觀子)(『매일신보』에 판소리 산정 작품을 연재할 때 사용) 등의 필명 사용

『매일신보』에 연재된  
〈옥중화〉(1912.01.01)



## 2) 이해조의 성장과 활동

- 1901년, 당시 33세였던 이해조는 양지아문 양무위원에 임명되면서 관직생활을 시작함
    - ✓ 양지아문 : 대한제국 정부가 근대적 토지 측량을 통해 정부의 조세 수입을 늘리고,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기구
  - 1903년, 중추원 의관에 임명된 지 이틀 만에 면직당하고, 낙연의숙으로 자리를 옮겨 근대적 교육 활동을 시작함
    - ✓ 낙연의숙 : 일본인 교사를 두고 일본어를 가르칠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로, 이후 보광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일반 과목들까지 다루게 됨
  - 1906년, 고향인 포천으로 돌아가 아버지 이철용 등이 세운 근대적 교육기관인 신야의숙에서 근무했음
  - 1906년 11월부터 국민교육회가 중심이 되어 만든 잡지 『소년한반도(少年韓半島)』에 소설 <잠상태(岑上苔)>를 연재하면서 본격적인 문학 활동을 시작함
    - ✓ <잠상태>: 전통적인 이야기 화소를 차용하되 우연적이고 비현실적인 특성에서 벗어나려 함
    - ✓ 구어체 문장의 구사를 통해 전통적 문체 형식을 근대적인 형태로 바꾸고자 시도함
  - 1907년, 『제국신문』으로 자리를 옮겨 <고목화>, <빈상설>, <원양도>, <구마검>, <흥도화>, <만월대>, <쌍옥적>, <모란병> 등 8편의 작품을 연재함
- 다양한 층위의 독자 유인

흥도화(1910년 유일서관 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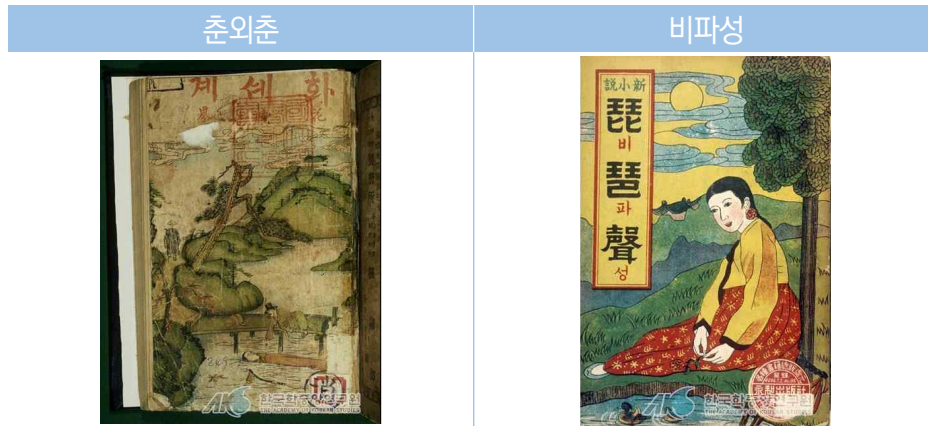
- 이후 대한협회 기관지인 『대한민보』에서 소설을 연재했으며, 단행본으로 출판된 〈화성돈전〉, 〈철세계〉, 〈자유종〉은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기획된 작품들임
- 1907년 양기탁, 주시경 등과 광무사를 조직해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했으며, 1908년 애국계몽단체인 대한협회, 기호흥학회에서 활동함

철세계(1908년 번안)	자유종(1910년 광학서포 간행)
	

- 1910년 한일병합 직후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서 〈화세계〉, 〈월하가인〉, 〈화의 혈〉, 〈구의산〉, 〈소양정〉 등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연재했음
- 1912년부터 판소리 명창의 구술을 '산정'한 〈옥중화〉, 〈강상련〉, 〈연의각〉, 〈토의간〉과 신소설 〈춘외춘〉, 〈탄금대〉, 〈소학령〉, 〈봉선화〉, 〈비파성〉, 〈우중행인〉을 차례로 연재함



전통적인 구술 텍스트를  
근대적인 독서물로 변환



✓ 〈춘외춘〉이나 〈비파성〉 같은 작품은 일제 식민 주체의 담론을 적극적으로 유포하려는 전략을 지닌 소설이었다. 식민 주체의 담론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서사 내적 균열과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 매일신보사 퇴사 후 고향 포천에 머물며 책을 출간함
  - ✓ 서양추리소설을 번역한 〈누구의 죄〉
  - ✓ 전통 가곡을 정리한 〈(정선)조선가곡〉
  - ✓ ‘역사소설’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 〈홍장군전〉, 〈한씨보응록〉
  - ✓ 기생의 자살이라는 당대적이슈를 소설화한 〈(여의귀)강명화실기(女의鬼 康明花實記)〉, 〈(여의귀)강명화전〉
- 신소설 대중화에 기여한 근대 초기 신소설 작가로만 알려져 있으나, 매우 다채로운 문학적 편폭을 보여주며 왕성하게 활동했음이 확인됨

신소설	한문소설	번역소설	토론체 소설
판소리 산정	한시	역사소설	가곡집

## 02. 이해조와 판소리

### 1) 이해조의 판소리 인식

- 이해조는 신소설 〈자유종〉에서 〈춘향전〉, 〈심청전〉, 〈홍길동전〉 등의 고전소설을 음탕하고 처량하며 허황된 이야기로 규정하면서, 이들 작품이 사회 발전과 아름다운 풍속을 어지럽힌다고 비판했음

#### 〈자유종 (1910년 광학서포간행)〉



우리 세종대왕 근로하신 성덕은 다 말씀할 수 없거니와 반절 몇 줄에 나라 돈도 많이 들었소. 그렇건마는 백성들은 죽도록 한문자만 숭상하고 국문은 버려 두어서 암글이라 지목하여 부인이나 천인이 배우되 반절만 깨치면 다시 읽을 것이 없으니 보는 것은 다만 춘향전·심청전·홍길동전 등물뿐이라, **춘향전을 보면 정치를 알겠소? 심청전을 보고 법률을 알겠소? 홍길동전을 보아 도덕을 알겠소? 말 할진대 춘향전은 음탕 교과서요, 심청전은 처량 교과서요, 홍길동전은 허황 교과서라 할 것이니, 국민을 음탕 교과로 가르치면 어찌 풍속이 아름다우며, 처량 교과로 가르치면 장진지망(長進之望)이 있으며, 허황 교과서로 가르치면 어찌 정대한 기상이 있으리까? 우리나라 난봉 남자와 음탕한 여자의 제반 악징이다 이에서 나니 그 영향이 어떠하오?**

- 이해조, 〈자유종〉

- 이해조의 판소리 산정 작업=계몽성 쇠퇴, 대중적 오락성에 대한 관심의 결과?
- 독자와의 소통적 측면에서 국문소설을 포함한 전통적인 이야기 문학이 지니고 있는 대중성과 효용성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음

“조선 자래로, 전해오는 타령 중, 춘향가, 심청가, 박타령, 토끼타령 등은 본래 유자한 문장재사가, 충효의 열의, 좋은 취지를 포함하여, 징악창선하는 큰 기관으로 적술한바인데, 광대의 학문이 부족함을 인하여, 한번 전하고 두 번 전하매 **정대한 본뜻을 잃어버리고** 음란천착한 말을 중언부언하여 하등무리의 찬성은 받을지언정 초유지각한 사람의 타매가 날로 더하니 어찌 개탄할 바가 아니라 하리오 (...) 본 기자(이해조)가 명창 광대 등으로 하여금 구술하게 하고 축조 산정하여 임의『춘향가』(옥중화)와 『심청가』(강상연)는 애독하시는 귀부인 신사 점각하의 박수갈채하심을 받았거니와차호부터는 『박타령』(연의각)을 산정 게재할 터인데 『춘향가』의 취지는 열행을 취하였고, 『심청가』의 취지는 효행을 취하였고, 이번에 게재하는 『박타령』은 형제의 우애를 권장하기 위함이니(중략) **아무쪼록 광대 타령이라 등한히 보지 마시고 그 타령 저술한 옛 삶의 좋은 뜻을 깊이 살피시오.”**

- 『연의각』예고, 『매일신보』, 1912.4.27.

- 이해조는 고전의 정전화 및 대중화에 관심이 컸음

- ✓ 정선조선가곡: 박춘재의 구술을 토대로 1914년 신구서림에서 편찬한 가곡집

### 03. 이해조가 남긴 판소리 기록: 『옥중화』, 『강상련』, 『연의각』, 『토의간』

#### 1) 이해조의 판소리 '산정'

- 산정
  - ✓ 기존의 소설 창작 또는 번안 등의 작업과는 다른 성격의 작업이라는 인식
  - ✓ さんせい[刪正]: 글·자구(字句) 따위를 깎고 다듬고 하여 잘 정리함
- 기본적으로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토끼전> 등과 같은 활자화된 고전 텍스트가 아니라 '-가', '-타령'에 해당하는 판소리 구술 텍스트를 대상으로 삼아 이루어진 작업
  - 구극(舊劇), 즉 창극 갈래에 대한 관심과 개량 의지
- 판소리 산정 작품의 1면 연재 : 국한문 혼용체에 익숙한 남성 중심의 지식인 독자를 염두에 둔 전략(4면의 신소설은 한글 독자 대상)

2) 이해조가 남긴 판소리 기록: 「옥중화」

- 판소리 명창 박기홍의 <춘향가> 사설을 바탕으로 개작한 국한문혼용체작품
- 1912.1.1부터 3.16까지 『매일신보』에 연재되었으며, 같은 해 박문서관, 보급서관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함



- 이후 <옥중화> 계통의 <춘향전>이 춘향전의 중심을 형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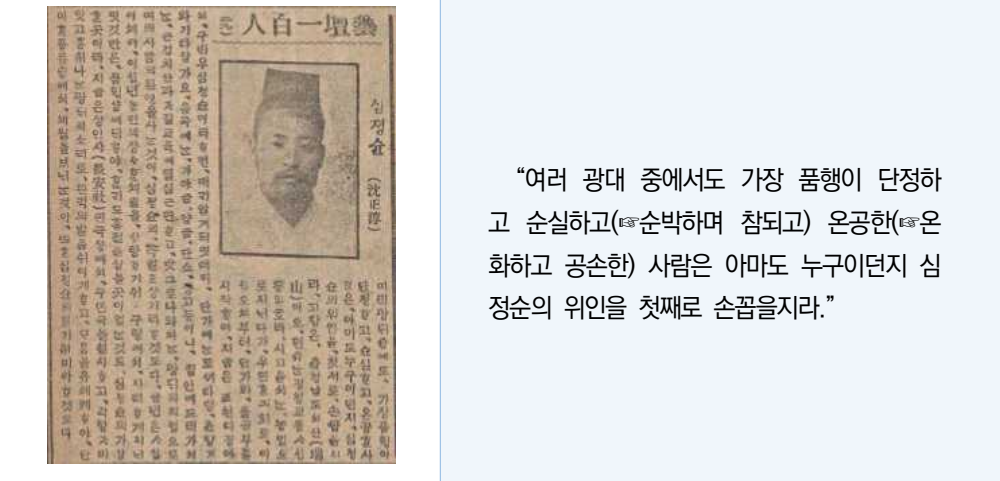
## 2) 이해조가 남긴 판소리 기록: 「강상련」

- 판소리 명창 심정순의 〈심청가〉 사설을 바탕으로 개작한 한글 전용 작품
- 1912.3.17부터 4.26까지 『매일신보』에 연재한 것을, 이후 같은 해 신구서림, 광동서국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함
- 장단 표시가 있음



- 예단일백인: 100명의 예술인을 취재한 내용을 연재한 1914년 『매일신보』 특집 기사로, 근대 예술인의 신상명세에 가까운 정보가 담겨 있음 (대부분 기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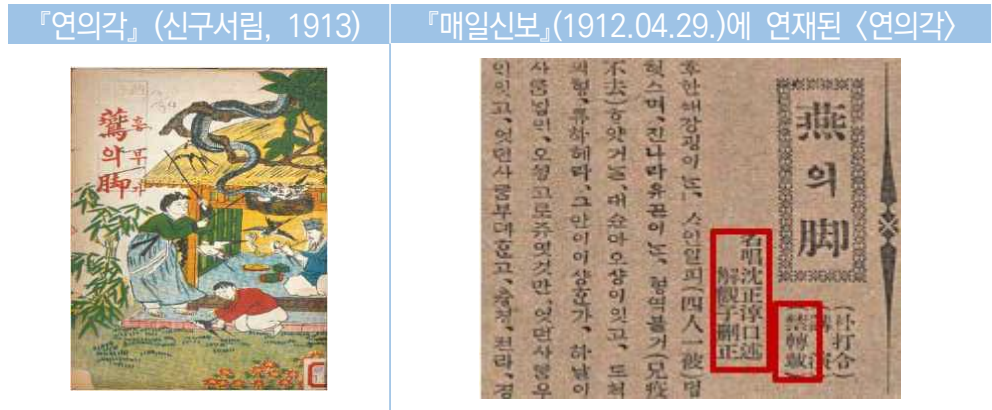
『매일신보』 특집기사 ‘예단일백인’에 실린 심정순(『매일신보』 1912.03.17)



- 심팔록-심정순-심상건, 심재덕, 심매향, 심화영 등으로 이어지는 충남 서산의 대표적인 세습예인 집안 출신으로, 판소리, 가야금병창, 가야금산조, 재담 등에 두루 뛰어났음

### 3) 이해조가 남긴 판소리 기록: 「연의각」

- 판소리 명창 심정순의 〈흥보가〉 사설을 바탕으로 개작한 작품
- 1912.4.29부터 6.7까지 『매일신보』에 연재한 것을, 1913년 신구서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함
- 장단 표시가 있음



- 금전재(禁轉載): 당대 출판문화와 밀접한 관련 하에 존재하는 근대적인 독서물(讀書物)

### 4) 이해조가 남긴 판소리 기록: 「토의간」

- 판소리 명창 곽창기, 심정순의 〈수궁가〉 사설을 바탕으로 개작한 작품
  - ✓ 1회는 곽창기, 2회 이후는 심정순의 구술임
- 1912년.6.9.부터 7.11.까지 『매일신보』 에 연재한 것을, 1913년 신구서림, 1916년 박문서관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함
- 장단 표시가 있음



【참고문헌】

- 국립중앙도서관, (청구기호 3634-2-20(3))
- 국립중앙도서관,  
<https://www.nl.go.kr/NL/contents/N20103000000.do?schM=co0nt>
- 국립중앙도서관,  
<https://www.nl.go.kr/NL/contents/N20103000000.do?schM=contView&schIdSub=CO0000232624>
- 국립중앙도서관,  
<https://www.nl.go.kr/NL/contents/N20103000000.do?schM=co0nt>
-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https://nl.go.kr/newspaper/detail.do?content\\_id=CNTS-00093965162](https://nl.go.kr/newspaper/detail.do?content_id=CNTS-00093965162)
- 국립중앙도서관, (청구기호 3634-2-78(4))
-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https://nl.go.kr/newspaper/detail.do?content\\_id=CNTS-00093918291](https://nl.go.kr/newspaper/detail.do?content_id=CNTS-00093918291)
- 국립중앙도서관, (청구기호 3634-2-103(1))
- 국립중앙도서관, (청구기호 3634-2-35(5))
- 국립중앙도서관, (청구기호 3634-2-64(7))
- 국민대학교  
<https://gspl.kookmin.ac.kr/information/new/press/1072951?pn=1>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46448#>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41515&cid=46664&categoryId=46664>
-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https://nl.go.kr/newspaper/detail.do?content\\_id=CNTS-00093914190](https://nl.go.kr/newspaper/detail.do?content_id=CNTS-00093914190)

## 4차시 판소리 명창들의 창본을 정리한 김택수, 한덕수

### 학습 목표

- 김택수가 간행한 『오가전집』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 한덕수가 간행한 『창극조 대춘향가』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 01. 『오가전집』을 간행한 김택수

##### 1) 김택수의 생애와 판소리 관련 활동

- 생몰년: 1895년~1976년
-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후손으로 충청남도 논산(현 계룡시)의 사계 고택에서 태어났음



- 일제강점기에는 미두(米豆: 현물 없이 쌀을 팔고 사는 일)를 하였고 광복 후에는 운현궁 집사를 지냈음
- 명창이나 귀명창들과 두루 교류하며, 직접 판소리를 부르기도 했던 판소리 애호가였음
-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명문 출신으로, 한학에 대한 조예, 조선시대 판소리 문화 향유에 대한 경험과 깊은 심미안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선유가 부르는 고제 소리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직접 그의 사설을 정리함
- 이선유와 함께 계룡산 동학사에서 한 달, 경상남도 산청의 대원사에서 보름 간 머물면서 판소리 다섯마당 사설을 정리하고, 이것을 자비로 출판함

## 2) 김택수가 남긴 판소리 기록: 『오가전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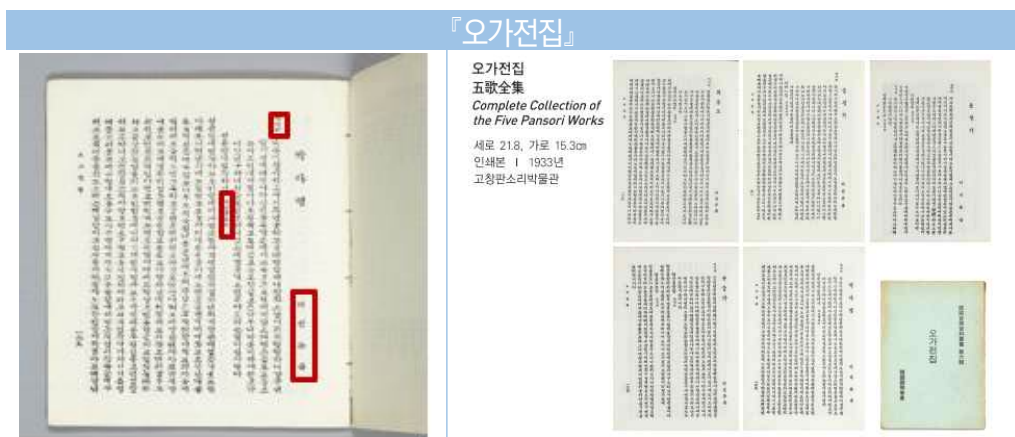
- 저자: 이선유 구술, 김택수 편저
- 명창 이선유의 판소리 5바탕 사설을 김택수가 채록한 창본으로, 1933년 4월 30일에 대동인쇄소에서 발행되었음
- 출판 동기

“바람이 나서 한 노릇이긴 했지만 그보다 더 큰 목적은 우리 고유의 노래를 성문화해 보았으면 하는 욕심과 국악학교의 설립과 당시 1만 명을 헤아리는 기생들에게 책을 팔아보자는 데 있었던 것이다.”

→ 판소리 애호가로서의 취미,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사명감, 교육적 활용과 상업적 성공 도모

판소리의 사설을 처음으로 기록해놓은 사람으로는 김택수 씨(현 운현궁 지배인 =69)이다. 진주의 명창 이선유씨의 창을 전부 김 씨가 기록한 것인데 1933년 4월에 대동인쇄소에서 발간한 것이며 「춘향가」를 비롯 「심청 · 흥부 · 적벽 · 수궁가」를 합해 「오가전집」이라 이름하였다. 김택수 씨는 전기 「오가전집」을 발간한 동기를 “바람이 나서 한 노릇이긴 했지만 그보다 더 큰 목적은 우리 고유의 노래를 성문화해 보았으면 하는 욕심과 국악학교의 설립과 당시 1만 명을 헤아리는 기생들에게 책을 팔아보자는 데 있었던 것이다.”고 설명하였다.

- 「문화재 도로찾기운동」, 『동아일보』 1962.11.14.



『오가전집』

오가전집  
五歌全集  
Complete Collection of  
the Five Pansori Works  
세로 218, 가로 15.3cm  
인쇄본 I 1933년  
고창판소리박물관

- 『오가전집』의 구성

이선유씨(李善有氏)(별지 사진)	〈화옹도〉(101~128쪽)
머리말(별면1쪽), 범례(별면1쪽)	〈수궁가〉(129~164쪽)
〈춘향가〉 목차(별면1~4쪽)	〈박타령〉(165~196쪽)
〈춘향가〉(1~55쪽)	판권지(197쪽, 별면)
〈심청가〉(57~99쪽)	

- 김택수가 정성을 들여 정리한 만큼 사설은 물론 아니리 또한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고, 여느 필사본처럼 사설의 와전이나 오류가 적기 때문에 판소리 사설의 정보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음
- 상대적으로 아니리나 재담은 많이 배제된 것으로 추정됨
- 한 명창의 소리제를 완전하게 채록하고, 정확하게 장단을 달아놓음으로써 판소리 사설 정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으며, 판소리사 연구에도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자료임

“본 전집은 오가 전부를 고조와 중고조와 신조 중 가장 현대 적절한 원문을 수집하였삽”

## 02. 『창극조 대춘향가』를 간행한 한덕수

### 1) 한덕수의 생애와 판소리 관련 활동

- 생몰년 미상
-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직원록에 따르면, 1927년~1930년까지 수북보통학교, 1931년~1934년까지 조성보통학교, 1938년~1939년까지 삼향심상소학교, 1940년에 일로북심상소학교에서 훈도로 근무한 ‘한덕수’라는 인물이 발견됨(4곳의 학교가 모두 모두 전라남도 일대에 위치)
  - ✓ 한덕수가 정광수 명창을 찾아간 곳: 당시 광주 서동에 있던 광주국악원
  - ✓ 『창극조 대춘향가』의 발행소: 광주지방법원 앞 한덕수대서소
- 초등학교 교원 출신으로 노년에 광주에서 대서소를 운영하던 중 『창극조 대춘향가』를 발간한 것으로 추정됨
- 수십 년간 판소리에 취미를 두고 직접 배우기까지 했던 판소리 애호가이자 귀명창임
- 한덕수가 『창극조 대춘향가』를 발간한 데에는, 역시 판소리 애호가이자 귀명창으로서 춘향가 사설집을 내놓을 것을 그에게 제안한 채이석(인쇄비용 부담, 창극조 대춘향가에 축사 남김)의 영향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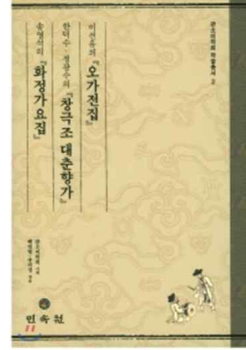
편자는 약관(若冠)시부터 우리 국악 특이 창극조(창판소리)에 취미를 가지고 배워 오던바 작추 동호 선배이신 청계 채이석(淸溪蔡伊錫)씨께서 창극조 춘향가 가사를 기하여 보라하심으로 사에게 권위이며 현 광주국악원 사범이신 고정 정광수(高瀨丁琇秀)선생을 배방하였드니 선생이 고 김창환 선생사와 정정렬선생사와의 이대류사를 소장하고 계심으로 차이대사를 종합하여 일사로 합편한 것이 본편이오며 권말에 초심하시는 분을 위하여 부록으로 창극조 장단의 원 가락과 창법의 개요(概要)를 첨부하오니 강호제현께서는 창극조로 국문학으로 가정구 감으로 본편을 리용하시와 일조가 된다면 무상의 영광으로 생각한다 본편 발간에 있어 집필동기부터 인쇄에 이르기까지 절대의 원조를 하여주신 청계 채이석씨에게 감사를 드린다.

- 『창극조 대춘향가』 서언

## 2) 한덕수가 남긴 판소리 기록: 『창극조 대춘향가』

### 『창극조 대춘향가』의 영인본

- 저자: 한덕수 · 정광수 합편
- 1954년 5월 15일, 판소리 명창 정광수와 초등학교 교원 출신의 판소리 애호가 한덕수가 공동으로 편찬한 판소리 창본
- 발행소는 광주지방법원 앞 한덕수대서소, 인쇄소는 광주서적인쇄소, 인쇄인은 조병철(趙秉喆)로 되어있음



- 『창극조 대춘향가』의 구성

서언	춘향가		부록
서언	2. 이도령 3. 광한루 4. 상봉 5. 사랑가 6. 이별 1) 춘향집 2) 오리정 7. 사모 8. 신연마지 9. 기생점고 10.수절	11. 과거 12. 어사염탐 13. 농부가 14. 춘향집 15. 옥중상봉 16. 생일잔치 17. 출도 18. 동헌상봉	◎ 부록 1. 창극조장단 2. 장단과 가사의 합치 3. 평시조보 4. 사설시조보 5. 수연가 6. 시조 7. 촉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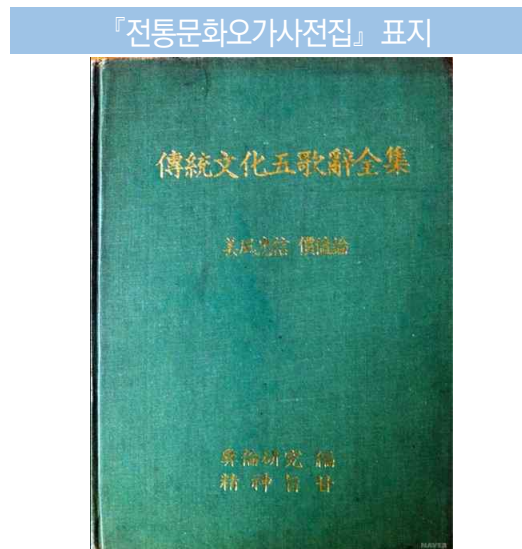
- 『창극조 대춘향가』의 표기

아니리	안일(아니리)
창 부분	진양조, 느진중머리, 중머리, 단중머리, 반중머리, 자진중머리, 중중머리, 자진중중머리, 자진머리, 자진자진머리, 휘머리, 반휘머리, 엇머리 등
판소리 이외의 노랫조	시조말장, 영시

- 1950년대 판소리계에 존재했던 신구(新舊) 서편제 춘향가의 합편본이라는 의미가 있음



- 정광수 명창 개인의 독자적인 창본 『전통문화오가사전집』 과는 그 성격이 다름



#### 【참고문헌】

- 한국전통연희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26253&cid=56785&categoryId=56785>
- 문화유산채널,  
<http://www.k-heritage.tv/brd/board/909/L/CATEGORY/911/menu/901?brdCodeField=CATEGORY&brdCodeValue=911&bbIdx=2279&brdType=R&tab=>
- 문화유산채널,  
<http://www.k-heritage.tv/brd/board/909/L/CATEGORY/911/menu/901?brdCodeField=CATEGORY&brdCodeValue=911&bbIdx=2279&brdType=R&tab=>
- YES24,  
<http://www.yes24.com/Product/Goods/41817494>
- 국립무형유산원 제공 사진(고창판소리박물관소장)
- 국립무형유산원 전시 가이드북,  
<https://www.nihc.go.kr/planweb/board/download.9is?fileUid=fb0db9957ac85138017da1e4cb2e0430&boardUid=ff8080816f83aa75016f83ac36f4000f>
- 최난경, 이선유오가전집연구, 박이정, 2009.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keyword=%EA%B9%80%EC%9E%A5%EC%83%9D&ridx=0&tot=76>

## 5차시 판소리 명창들의 사진과 시평을 남긴 이영민

### 학습 목표

- 벽소 이영민이 남긴 판소리 기록과 사진이 판소리사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01. 이영민의 생애

##### 1) 이영민의 출생과 가계

- 생몰년: 1882년~1964년
- 호: 취산, 벽소
-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응령리 금곡마을에서 부친 이세근과 모친 정매곡의 장남으로 태어남
- 항일 독립 운동가이자 사회주의 운동가, 언론인, 교육자, 서예가, 판소리 후원자로 활동한 인물임

이영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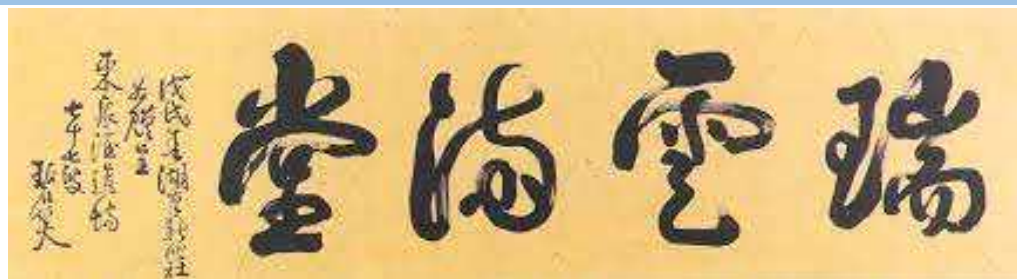
이영민 생가



## 2) 이영민의 성장과 활동

- 어린 시절, 한학과 서예를 배웠음
- 18세(1900년)에 관립 교원양성학교인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고향 순천에서 야학을 개설하여 후학들의 교육에 매진함
- 28세에 박승휘와 함께 순천남학당(현 순천남초등학교)을 공립으로 인가받아 34세까지 교원으로 재직함
- 이후 교직을 그만두고 중국으로 망명하여, 여운형, 안재홍, 송진우, 오세창등과 교류하며 독립운동을 했음
- 37세에 귀국한 뒤, 순천 지역에서 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농민운동에 참여했음
  - 일제와 결탁한 지주들의 부당한 소작료 횡포로 고통받던 소작농의 편에서 소작투쟁을 주도했음
- 40세(1922년)부터 동아일보기자로 활동하며 소작투쟁, 농민운동, 노동대회를 전개함
- 43세에 사회운동에 관련된 잡지와 도서를 출판하는 사상운동잡지의 발기인으로 참여함
-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고 46세에 출옥했으나, 그 후에도 사회 활동을 지속함
- 이후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면서 서예점을 운영하며 서예에 몰두하는 한편, 순천 지역 유지인 김종익과 함께 판소리 창자를 비롯한 예술가들을 위한 후원 활동을 펼침
- 1939년 북경에서 열린 흥아서도전과 조선서도전에서 입선
- 1940년 경도에서 열린 일만지삼국연맹서도전에서 입선

순천대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서운만당' 휘호



## 02. 이영민과 판소리

### 1) 이영민의 판소리 향유

- 순천친목계: 1918년 순천 지역 인사 23명이 문화 향상을 목적으로 내걸고 조직한 친목계로, 순천 지역 판소리 문화에 영향을 끼쳤음
  - ✓ 서병규 (?~?) : 도평의원을 역임하고 삼우자동차, 순천산업(주), 천직물(주)에 참여한 재력가로 순천권번의 권번장이었음
  - ✓ 서정수(1899~?) : 전라남도 경찰부경부를 거쳐 조선총독부 군수로 발탁되어 여러 지역의 군수를 역임했으며, 그의 사랑이 순천의 판소리 풍류방역할을 했음
  - ✓ 김종익(1886~1937) : 순천 지역 유지로, 순천농업학교(현 순천대학교)와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에 기여했으며, 여러 국악인들을 후원함

### 2) 이영민의 판소리 활동

- 판소리 단가 <순천가>: 43세 무렵 쓰기 시작해 65세에 최종 완성한 작품
  - ✓ 환선정과 향림사, 임청대, 옥천서원, 선암사, 천자암등 순천의 산천 문물과 명소 40여 곳, 그에 연관된 인물을 단가 사설로 노래함
    - 순천의 아름다운 경치와 문화·예술에 대한 자부심, 식민지 현실 타개를 위해 외세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항거 의식

#### <순천가>의 구성

1. 장대에서부터 구만리까지 이르는 여정에서 본 동천 주변의 풍광과 지명을 형상화
2. 향림사로부터 순천읍성 남문루인 연자루에 이르기까지의 여정
3. 순천읍성 외곽으로 현 순천만 인근 앵무산 아래의 용두포에서 낙안에 이르기까지의 여정
4. 낙안에서 조계산의 선암사와 송광사에 이르는 여정

- 오기석이 중모리로 곡을 붙였고, 이후 박향산이 1965년을 전후해 중모리, 진양조, 자진모리로 만들
- ✓ 박향산의 증언에 따르면, 이영민의 아우 이영춘이 <순천가>가 곡을 얻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겨 박봉술에게 곡을 부탁하려고 했으나, 박봉술이 서울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아 오랫동안 곡을 얻지 못하다가 박향산에게 부탁하여 곡을 붙였다고 함

### 이영민이 지은 <순천가> 기념비



“죽장망혜(竹杖芒鞋) 단표자(單瓢子)로 호남 순천을 구경 가자. 장대(長臺)에 봄이 오니 양유천만사(楊柳千萬絲)요, 죽도봉(竹島峰)에 구름이 일어 만성명월(滿星明月)이 삼오야(三五夜)라…”  
 - <순천가>

### 03. 이영민이 남긴 판소리 기록: 『벽소시고』와 명창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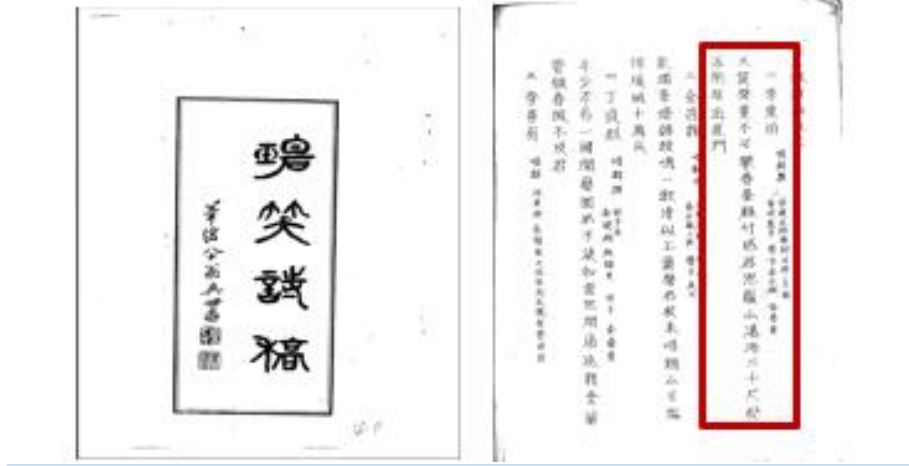
#### 1) 이영민이 남긴 판소리 기록: 『벽소시고』

- 『벽소시고』 부록 『청구악부초』
  - ✓ 「근대국악계인물(近代國樂界人物)」: 판소리 명창을 비롯한 음악인 41명의 이름과 함께 그들의 장기 및 생년과 출신지·사승 관계 등이 소주(小註) 형태로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그들의 음악 등을 평한 한시가 수록되어 있음
  - ✓ 「근대국악계인물」에 등장한 명인·명창

1. 송만갑 (창극조)	2. 이동백 (창극조)	3. 김창룡 (창극창)	4. 정정렬 (창극조)
5. 이선유 (창극)	6. 한성준 (명고)	7. 정응민 (창극조)	8. 배설향 (창극조)
9. 이회중선 (창극조)	10. 박록주 (창극조)	11. 김초향 (창극조)	12. 김여란 (창극조)
13. 김연수 (창극조)	14. 임방울 (창극조)	15. 정원섭 (명고)	16. 백락준 (금사)
17. 이소향 (가야금사)	18. 조몽실 (창극조)	19. 김준섭 (창극조)	20. 박초월 (창극조)
21. 오태석 (가야금사)	22. 김종기 (가야금사)	23. 김소희 (창극조)	24. 박귀희 (창극조)
25. 김명옥 (창극조)	26. 정광수 (창극조)	27. 오비취 (창극조)	28. 신숙 (창극조)
29. 신쾌동 (금사)	30. 함동정월 (창극조)	31. 송영석 (창극)	32. 조소옥 (창극)
33. 조금옥 (창극)	34. 이중선 (창극)	35. 박채련 (창극)	36. 조농옥 (창극)
37. 강산홍 (금사)	38. 한갑득 (창극)	39. 김록주 (창극)	40. 한애순 (창극)
41. 안채화 (창극조)	*창극, 창극조: 판소리 / *명고: 판소리 고법 / *금사: 거문고 연구 / *가야금사: 가야금 연주		

✓ 「벽소시고」 내 이동백 부분

『벽소시고』 표지 및 「근대국악계 인물」의 '이동백' 수록 부분



이(二). 이동백(李東伯)

창극조(唱劇調) 병인생(丙寅生) 충남(忠南) 서천군(舒川郡) 일방면(一方面)  
김정근, 김희중에게 배웠음[學于 金正根, 金希重]

타고난 성량은 견줄 이가 없는데(天質聲量不可攀),

춘당대잔치에서 임금 은혜 감격스럽네(春臺絲竹感君恩).

여산폭포의삼천 자 되는 세찬 물길이(廬山瀑布三千尺)

남원의 어사출도하는 문에 날아 떨어지도다(飛落南原出道門).

- 『벽소시교』 부록 「청구악부초」

- ✓ 한시 <옥중화가(獄中花歌)>: 판소리 춘향가의 내용을 장편의 한시(7언고시 78구)로 만든 작품

숙종 4년 무오년(1678년)에  
 이후(李候)가 새로이 남원부사로 부임했네.  
 부사에게 몽룡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책방에 등잔불 켜고 매일같이 공부만 하기는 괴롭더라.  
 남원은 예로부터 경치 좋은 데가 많은 곳이라,  
 나귀에 빗질하여 나와 광한루에 올랐네.  
 교룡산은 빼어나고 요전은 푸른데,  
 오작교는 옥류를 베개 삼아 가로로 누웠구나.  
 선은사중소리 울리니 낮 구름 흩어지고,  
 성문의 버드나무 빛깔은 황금이 부끄러워할 정도라네.  
 길가의 나무 맑은 날에 흔들리는데 피꼬리 울고,  
 적성산에 자줏빛 안개 일어나는데 폭포 날아내리네.  
 남쪽을 바라보니 고운 햇살이 녹음 안으로 들고,  
 어디서 왔을까, 그네에 오르는 아름다운 저 여인은.  
 갑자기 나타났다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사뿐하기가 제비와 같으니,  
 문득 구름 끝에서 내려온 선녀가 아닌가 의심되는구나.

- <옥중화가> 중

- ✓ 한시 <절기성춘향>: 판소리 춘향가와 관련되는 7언 절구 형태의 한시

지닌 뜻은 가을 산 같고 자태는 옥 같아,  
 이별 후 옥중에서의 괴로운 시간도 달게 여기네.  
 기생의 수절은 그 아름다운 명성이 천년을 갈 만한 것이니,  
 오늘 부르는 노래가 만인의 입으로 전해지리라.

- <절기성춘향>

- 이영민은 판소리 춘향가의 주제상 핵심을 춘향의 '절(節)'로 보고, 이에 따라 두 편의 작품을 남김

## 2) 이영민이 남긴 판소리 기록: 명창 사진

- 이영민, 김종익 등이 1920년부터 1948년까지 50여 명에 달하는 판소리 창자, 고수, 기악인 등 당대 음악인들을 순천으로 초청해 판을 벌였음
- 이영민은 이 음악인들의 노래와 음악을 감상한 다음, 그들의 풍모 또는 예술을 평하는 한시를 지어 쓰고, 이를 배경으로 인물들의 사진을 찍어 남겼음

### → 중요한 근현대 판소리 자료

- ✓ 사진 촬영은 1920년 판소리 명창 송만갑을 시작으로, 1948년 거문고 명인 오학남에 이르기까지 28년 동안 지속되었음
- ✓ 황우수의 증언에 따르면, 이영민이 당시 명창들의 사진을 찍은 곳은 비너스사진관(지금의 영진약국 자리)이었고, 찍은 사람은 이영민의 친척이자 사진관 조수로 있던 김홍석이었다고함
- ✓ ‘(사)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진흥회’가 정리해 펴낸 『관극(觀劇)·시(詩)·사(寫)』에 「청구악부초」에 수록된 41명을 포함해 모두 54명의 음악인 사진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벽소시고』 편찬 이후에도 음악인들에 대한 기록 작업을 지속했음을 알 수 있음
- 『관극(觀劇)·시(詩)·사(寫)』에 실린 54명의 사진을 살펴보면 그 중 김종기, 백낙준, 이선유, 김초향, 함동정월, 신숙, 김여란은 사진을 직접 찍은 것이 아니라 얼굴만 있는 사진을 가져다가 서예작품과 함께 사진을 찍은 형태임

### → 유성기 음반을 통한 판소리 감상, 향유

- 사진을 전해 받은 음악인들은 그것을 큰 훈장처럼 여기고, 소중히 간직하였다고 함

## 이동백의 사진



타고난 성량은 견줄 이가 없는데(天質聲量不可攀),  
 춘당대잔치에서 임금 은혜 감격스럽네(春臺絲竹感君恩).  
 여산폭포의삼천 자 되는 세찬 물길이(廬山瀑布三千尺)  
 남원의 어사출도하는문에 날아 떨어지도다(飛落南原出道門).

-기(寄) 국창(國唱) 이동백(李東伯) 악단(樂壇) 하(下)  
 벽소(碧笑) 이영민(李榮珉)

#### 【참고문헌】

- 순천대학교 김용찬 교수 제공
- 문화유산채널,  
<http://www.k-heritage.tv/brd/board/909/L/CATEGORY/911/menu/901?brdCodeField=CATEGORY&brdCodeValue=911&bbIdx=2337&brdType=R&tab=>
- [전라도 천년 인물열전] 〈34〉 순천 민족독립운동 지사 벽소(碧笑) 이영민 상, 광주일보 2018.10.17.  
<http://kwangju.co.kr/article.php?aid=1539702000643795262>
- [전라도 천년 인물열전] 〈35〉 순천 민족독립운동 지사 벽소(碧笑) 이영민 하, 광주일보 2018.10.24.  
<http://pdf.kwangju.co.kr/pdf/201810/1024-18.pdf>

## 6차시 판소리 연구서 『조선창극사』를 저술한 정노식

### 학습 목표

- 정노식의 『조선창극사』를 살펴보고 이 저술이 판소리사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01. 정노식의 생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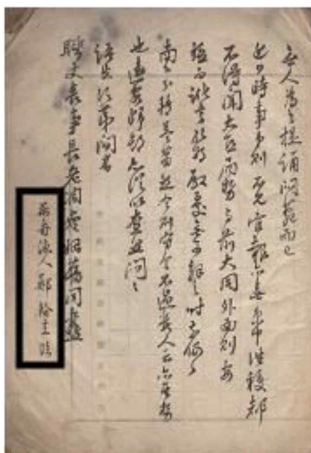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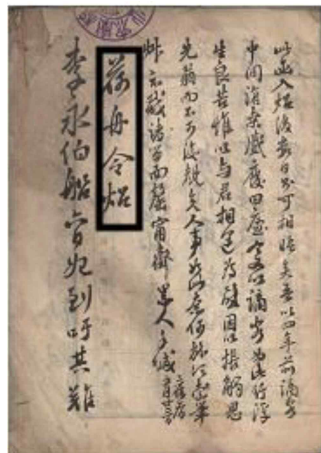
##### 1) 정노식의 출생과 가계

- 생몰년: 1891년~1965년
- 전라북도 김제군 만경면 화포리에서 태어나, 만경리에 거주하는 작은아버지 집안에 양자로 입양되었음
- 정노식의 둘째 종조부인 정한규의 둘째 아들 정석종과 신재효의 외아들 신순경의 딸 사이 혼인으로, 동래정씨 집안과 평산신씨 집안 간 혼맥이 형성됨

※ 정한규: 전라북도 김제 만경에 거주했으며, 판소리를 즐기던 '풍류호객'이었음  
판소리 사설 〈토별가〉를 구해 직접 필사하고 소장했음

→ 정한규의 신재효 〈토별가〉 사설 필사,  
정노식의 『조선창극사』 〈신오위장소전〉 기술이 가능했던 배경

정한규가 주고받은 편지를 모은 『하주간독』



신재효



## 2) 정노식의 성장과 활동

- 유년기에 한학자 이정직 문하에서 한학을 익혔음  
※ 이정직 : 중국을 여행하고 칸트를 연구했던 진보적인 실학자로 평가됨
  - ✓ 『조선창극사』에 신위의 〈관극시〉 · 장지원의〈광한루시〉 · 조재삼의 『송남잡지』 · 이유원의 『가오악부』 · 정범조의 『해좌집』·윤원의 〈광한루악부108첩서〉 · 윤달선의 〈광한루악부108첩총론〉 · 이견창의 〈배령이수〉 등에서 발췌한 문장이 포함됨
- 1910년 김제의 영명학교를 졸업한 뒤 20세가 되던 1911년 서울의 경성기독교청년회관(YMCA)에 들어가 공부했음
- 일본으로 건너가 1912년 도쿄 세이소쿠영어학교를 졸업하고, 메이지대학[明治大學] 법과에 입학했다가 중퇴함
- 1918년 조선유학생학우회 평의원이 되었으며, 1919년 귀국하여 3·1운동에 관여했다가 체포되어 2년 간 옥고를 치름
- 1920년대 장덕수 등과 함께 국내 청년회를 통합한 조선청년회연합회를 조직해, 전국을 순회하며 강연하고, 물산장려운동, 민립대학설립운동 등에 참여함

1946년 3·1 운동기념 시민대회에서 축사를 읽는 정노식



청년연합회의 신임집행위원 사진



조선청년회연합회 제3회 정기총회에서 서울청년회가 탈퇴하는 파행을 겪은 끝에 선출된 신임 집행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념사진을 찍었다. 함께 사진을 찍지 못했는지 오른쪽 아래 신임 위원장 정노식의 사진을 따로 새겨넣었다.

- 1924년 국내 청년들의 단체가 극심한 좌우의 대립, 분리를 겪던 시점, 정노식은 조선청년회연합회 집행위원장을 맡으면서 비교적 민족주의 계열에 가까운 성향을 보였음
- 1924년을 전후한 시기에 서울 무대를 떠나 고향인 전북 김제로 내려가서 판소리 연구에 매진하는 한편, 사회주의에 관심을 가짐
- 1930년대 중후반 판소리 자료를 본격적으로 수집하여, 1940년에 『조선창극사』를 발간함
- 1945년 사회주의 성향의 고려청년당 창립 당시 고문으로 추대되고, 1946년 여운형, 허헌, 박헌영, 김원봉등이 구축한 민주주의 민족전선준비위원회 위원이 됨
- 1946년 11월 23일 서울에서 조선공산당, 남조선신민당, 조선인민당의 합당으로 남조선노동당이 결성되는데, 정노식은 이때 남조선노동당의 중앙위원으로 선출됨
- 1948년 8월 15일 행사의 폭동에 대한 재판을 받고 난 뒤 12월 월북함
- 조운, 박태원, 김아부, 김삼불 등이 공연이나 문학 연구 분야에서 활동한 것과 달리, 정노식은 주로 정치적인 행보를 보였음
  - ✓ 1948년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  
1949년 남북의 민주주의민족전선을 통합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의장을 지냈고, 한국전쟁 이후에 1956년 노동당 중앙검사위원,  
1957년 최고인민회의 제2기 대의원 및 상임위원,  
1958년 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부위원장,  
1961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중앙위원에 선임됨

### 신오위장본집



## 02. 정노식과 판소리

### 1) 정노식의 판소리 인식

- 정노식이 판소리를 개인적 취미로 향유하는 것을 넘어 학문적 저술을 기획하게 된 계기: 판소리 향유 문화가 풍부하게 전승되고 있었던 김제 만경의 지역적 특색, 동래정씨 집안과 평산신씨 집안 간 혼맥관계

필자 십여 년 전에 고향 모 회갑연에 참석하였을 때에, 강(≡강소춘)의 창극조를 잠간 들은 기억이 있다.

- 『조선창극사』

### 2) 정노식의 판소리 향유

- 1920년대 중후반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판소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임

나는 조선창극조-광대소리를 딱 좋아하고 찬양한다. 어찌 나뿐이라. 조선사람은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좋아하지 않는 이가 없고 찬미 아니하는 이가 없을 것이다.

- 『조선창극사』

- 김약영의 『조선창극사』 서문

“상곡선생(≡정노식)이 금번의 책자 외에 글로 말로 조선의 소리 혹은 광대에 관하여 자조 발표한 것을 들었다”

- ✓ 정노식이 본디 판소리 명창들에 대하여 말을 자주 하였던 관계로 그가 판소리 명창들에 밝다는 것이 알려져 조광(朝光)에서 글을 부탁하였고, 이에 그가 그때까지 알고 있던 광대론과 판소리론을 엮어 <조선광대(朝鮮廣大)>의 사적(史的) 발달(發達)과 그 가치(價値)를 발표했으나, 막상 글을 쓰고 보니 소루한점이 많음을 발견하고 이후 3년간 본격적인 현지조사를 통해 『조선창극사』를 집필한 것으로 추정됨

### 03. 정노식이 남긴 판소리 기록: 『조선창극사』

#### 1) 정노식의 『조선창극사』 집필 과정

- 일본 유학 시절 친분을 맺었던 김명식, 김양수, 이광수 등이 『조선창극사』의 서문을 작성함
- 1930년대 중후반, 송만갑, 이동백, 전도성 등을 통해 판소리 관련 자료를 본격적으로 수집했음
  - ※ 송만갑: 조선성악연구회를 통해 송만갑과 이동백에게서 자료를 구함
  - ※ 전도성: 정노식의 집안과 교류가 있었던 인물로, 1939년 6월 전북 정읍에 거주하던 전도성을 찾아간 것으로 되어 있음

내 조선 창극조 광대소리(판소리)에 대한 취미를 남달리 가졌으므로 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아니하고 들었고, 광대와 마주할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붙잡고 종으로 횡으로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 다소의 견문을 종합하여서 그 인물을 들춰내고, 와전을 교정하고, 지리멸렬에서 고구하여 전통을 세워서, 역대 명창에 한하여서 그들의 약전과 및 그 예술과 사적 발달을 개술코자하나, 그러나 창극조가 어느 시대부터 생겼으며 누가 광대의 효시인지 문헌의 기록이 없는 만큼 재료를 얻을 빙거가전혀 없고 전설로는 증좌가 모호하므로, 따라서 기술하기가 딱 곤란하고 의문이 많다. 그러므로 부로(父老)의 구전과 노 광대들의 구술에 의빙 참작 할 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그러나 이 역시 인물의 누락, 선후 전도 및 그 연대의 착오가 없음을 면치 못할 줄로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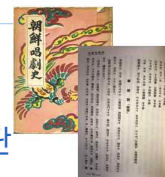
- 『조선창극사』

#### 『조선 광대의 사적 발달 및 그 가치』

- 창극조의 유래와 그 변천 발달
- 춘향전의 유래와 발달한 경로
- 광대의 인물과 그 역사
- 광대의 효시
- 현대명창
- 여류명창
- 동서 양파의 유래와 우조 계면의 분석
- 우조 계면의 차이

#### 『조선창극사』(조선일보사, 1940)

- 이훈구·임규·이광수·김명식·김양수의 서문과 저자 정노식의 '서언'
- 신위의 <관극시>·장지완의 <광한루시>·조재삼의 『송남잡지』·이유원의 『가오악부』·정범조의 『해좌집』·윤원의 <광한루악부108첩서>·윤달선의 <광한루악부108첩총론>·이건창의 <배령이수> 등에서 발췌한 문장
- 우조·계면조의 분석
- 창극조의 조직과 장단
- 대가닥
- 극창의 고전종류
- 조선창극조의 유래와 그 변천 발달
- [춘향전의 저작고증]
- 창극조 광대의 효시
- 광대의 약전 및 그 예술



## 2) 정노식이 남긴 판소리 기록: 『조선창극사』

- 1940년 1월 15일 조선일보사에서 간행된 정노식의 저서로, 판소리 연구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최초의 본격적인 판소리 저술
- 1930년대에 촉발되었던 **전통론·고전론에 대한 관심과 전통연구운동 내지 국학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저술

문학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자산의 『조선문학사』</li> <li>• 김태준의 『조선소설사』</li> <li>• 조윤제의 『조선시가사』 등</li> </ul>
연극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재철의 『조선연극사』 등</li> </ul>
민속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진태의 『조선민족설화연구』</li> <li>• 이능화의 『조선무속고』 · 『조선해어화사』 등</li> </ul>
사상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상윤의 『조선유학사』 등</li> </ul>

- 판소리 유파를 정의하는 기준의 문제, 더늠에 대한 개념정의의 혼란 문제, 개별 명창의 더늠으로 인용한 사설의 출처 문제, 전도성의 구술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나타난 객관성 결여의 문제 등이 지적되기도 함

#### 【참고문헌】

- 『조광』 제4권 제5호 1938.5
- 한국전통연희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26281&cid=56785&categoryId=56785>
-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https://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G43331\\_00&notes=basic](https://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G43331_00&notes=basic)
- 동아일보 1922.04.06.  
<https://www.donga.com/news/donga100/view?gid=102837613&date=20200908>
- 이진오, 정노식의 생애 연구- 행적과 교유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53,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 송미경, 동래정씨(東萊鄭氏) 문중(門中) 내 판소리 문화 향유의 일양상, 판소리연구30, 판소리학회, 2010.
- 한국전통연희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26079&cid=56785&categoryId=56785>